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런들 엇더히며 저런들 엇더히료
㉠ 萬壽山 드령출이 얼거진들 엇더히리
우리도 이 곳치 얼거져 ㉡ 百年씩 지 누리리라

(나)

이런들 엇더히며 더러흔들 엇더히리
萬壽山 드령출이 얹어지다 그 엇더히리
[A] 우리도 이것치 얹어져서 百年씩 지 ㉢ 누리과져

01

(가)와 (나)의 공통적인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인 시어를 병치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유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 ④ 감각의 전이 과정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심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0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지향하는 고결하고 탈속적인 이상향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② 현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고통의 장소를 의미한다.
- ③ 참정굴이 얹혀 있는 구체적 배경이자 화자가 긍정하는 상황적 공간이다.
- ④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종교적 성지이다.
- ⑤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현재의 초라함을 대비시키는 매개적 공간이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고려 말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지은 시조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드령출'이 얹히는 행위는 단순히 자연의 현상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는 세력(ㄱ)과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세력(ㄴ)이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결합하는 것을 비유한다. 화자는 이러한 '엹힘'을 통해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질서를 누리자는 제안을 던지고 있다.

- ① '이런들 엇더히며 저런들 엇더히료'는 (ㄱ)에게 기존의 가치관을 고수하기보다 유연한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겠군.
- ② '萬壽山 드령출'이 얹혀 있는 모습은 (ㄴ)이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적 통합의 정당성을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강조하는 것이겠군.
- ③ '우리도 이 곳치 얼거져'라는 표현은 (ㄱ)과 (ㄴ)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공존의 길로 나아가자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겠군.
- ④ '百年씩 지 누리리라'는 (ㄱ)이 지켜온 충절의 가치를 계승하여 새로운 왕조에서도 그 명맥을 영구히 보존해주겠다는 약속을 담은 것이겠군.
- ⑤ 작품 전반의 설의적 어조는 (ㄱ)의 결단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역설하며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화자의 배려 섞인 회유책이겠군.

04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시간의 유한성을 강조하여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라는 쾌락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② ㉢는 화자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종결 어미를 통해 자신감을 표출한다.
- ③ ㉠는 영속성을 상징하는 수치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지속 기간을 구체화한다.
- ④ ㉢는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의문형 형식을 취하여 화자의 제안에 강제성이 없음을 시사한다.
- ⑤ ㉠와 ㉢는 모두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을 씻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매개체이다.

05

이 작품에서 '드렁쭈'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가시나무 울타리가 앞길을 막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가려는 의지
- ② 굽이치는 강물이 바다로 향하듯 순리에 몸을 맡기려는 유순함
- ③ 한겨울 서리를 견디며 홀로 피어난 국화의 고고한 절개와 지조
- ④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려 비바람을 견디는 소나무의 강인한 생명력
- ⑤ 여러 줄기가 뒤섞여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공존의 생태적 질서

06

(가)의 화자가 청자에게 건네는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청자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여 청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자연의 섭리를 근거로 제시하며 청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완화하고 있다.
- ④ 청자의 가치관이 지닌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⑤ 비극적인 미래상을 제시하여 청자에게 즉각적인 결단을 강요하고 있다.

07

(가)와 (나)를 비교하여 화자의 태도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현실의 복잡한 관계를 부정하기보다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② (가)의 '누리리라'는 화자의 단정적 의지를, (나)의 '누리과쳐'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한다.
- ③ (가)에 비해 (나)는 '엮어져서'라는 표현을 통해 관계의 지속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만수산'이라는 공간을 자신들의 이상이 실현될 무대로 인식한다.
- ⑤ (가)와 (나) 모두 '엇더히리'라는 표현을 통해 타협의 가치가 명분보다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08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자연 경관에서 느낀 감흥을 인간사로 확장하고 있다.
- ②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제시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빌려 화자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외부의 상황적 유연함을 제시한 뒤 이를 화자 집단의 삶의 방식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관찰하며 삶의 덧없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9

초장의 '이런들 엇더히며 저런들 엇더히료'에 담긴 화자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 ②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
- ③ 사소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호방하고 낙천적인 태도
- ④ 상대방의 변심을 경계하며 확답을 요구하는 집요함
- ⑤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할 것을 대비하는 방어적 자기합리화

10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드렁쭈'의 생태적 특징을 인간 관계의 모델로 삼고 있다.
- ② '萬壽山'은 칩덩굴이 얽혀 있는 모습이 관찰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③ 화자는 자신과 청자가 '얼거져' 지내는 기간을 한시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의 초장에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이 나타난다.
- ⑤ 화자는 얽혀서 사는 삶이 가져다줄 긍정적 미래를 '누리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1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안위를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희생하겠다는 이기적 욕망의 표출이다.
- ② 이질적인 존재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를 바라는 통합의 의지이다.
- ③ 자연으로 돌아가 세속의 번뇌를 잊고 살고 싶어 하는 은둔 자적 삶의 지향이다.
- ④ 신분 질서의 엄격함을 강조하며 각자의 위치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보수적 태도이다.
- ⑤ 과거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물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단절의 선언이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단심가」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몽주의 「단심가」 중 일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 백골이 진토되어 뉘 이라도 있고 없고 /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는 (가)에 대한 답가로 알려져 있다. (가)의 화자가 '업힘'과 '누림'을 강조했다면, 「단심가」의 화자는 '단절'과 '불변'을 강조하며 (가)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 ① (가)의 '엇더하리'가 상황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나타낸다면, 「단심가」의 '있으랴'는 변화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나타낸다.
- ② (가)의 '드렁쭈'이 유연한 관계 맺기를 상징한다면, 「단심가」의 '백골'은 죽음을 초월한 신념의 견고함을 상징한다.
- ③ (가)의 '우리'가 통합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념이라면, 「단심가」의 '이 몸'은 개별적 주체로서의 실존적 결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 ④ (가)의 '百年'이 세속적 삶의 충만함을 지향한다면, 「단심가」의 '일백 번'은 물리적 시간을 넘어서는 정신적 가치의 영원성을 지향한다.
- ⑤ (가)와 「단심가」 모두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향하는 가치의 방향은 서로 수렴하고 있다.

13

윗글에서 '드렁쭈이 얹어진' 상태를 제시함으로써 얻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느끼는 내면의 혼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 ② 인위적인 노력을 배제한 자연 무위의 상태를 예찬한다.
- ③ 추상적인 정치적 화합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투영한다.
- ④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운명적 굴레를 상징한다.
- ⑤ 대상 간의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확립되었음을 암시한다.

14

윗글의 '드렁쭈'와 <보기>의 '뿌리'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깊은 땅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히 버티는 / 나무의 뿌리들이 있어 숲은 무너지지 않는다. (가상의 시)

- ① '드렁쭈'는 관계의 확장을, '뿌리'는 존재의 근원을 상징한다.
- ② '드렁쭈'는 수직적 상승을, '뿌리'는 수평적 확산을 지향한다.
- ③ '드렁쭈'는 일시적 만남을, '뿌리'는 영원한 결합을 의미한다.
- ④ '드렁쭈'는 외면적 화려함을, '뿌리'는 내면적 충실함을 강조한다.
- ⑤ '드렁쭈'는 갈등의 원인을, '뿌리'는 갈등의 해소책을 상징한다.

15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죽음으로 맞서는 순교자적 정신
- ②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려는 개혁 의지
- ③ 명분보다는 실리를, 대립보다는 화합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태도
- ④ 자연의 순수함을 보존하여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생태주의
- ⑤ 개인의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결속으로부터의 탈피

하여가 내신 문제지 · 정답 및 해설

0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② 설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유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 전반에 나타난 수사법과 그에 따른 화자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② (가)와 (나) 모두 '엇더흐며', '엇더흐료', '엇더흐리' 등 설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굳이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세나 상황에 순응하며 얹혀 살아가는 것이 상관없다는 화자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다.

[오답 풀이]

- ① '이런들'과 '저런들'은 대립적 가치를 지닌 시어의 병치라기보다 상황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표현이므로 부적절하다.
 ③ '드렁츨이 얼거진' 모습은 얹힘의 상태를 나타낼 뿐, 하강적 이미지나 인생의 허무함과는 거리가 멀다.
 ④ 구체적인 사물인 '드렁츨'이 등장하나 감각의 전이(공감각)는 나타나지 않으며, 대상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⑤ (가)는 평서형과 설의형, (나)는 소망을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고 있을 뿐, 청자에게 행동 변화를 강요하는 명령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02 시어의 함축적 의미

정답: ③ 침당굴이 얹혀 있는 구체적 배경이자 화자가 긍정하
는 상황적 공간이다.

[출제의도]

시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함축을 결합하여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③ ㉠ '萬壽山(만수산)'은 침당굴이 얹혀 있는 실제 지명이자, 시적 맥락에서 '이런들 엇더흐며 저런들 엇더흐리'라는 화자의 긍정적 수용 태도가 투영된 공간이다. 침이 얹혀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화자 자신의 삶의 방식과 동일시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 풀이]

- ① 만수산은 침이 얹힌 세속적 융합의 공간이지, 세속을 벗어난 고결한 이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화자는 얹힘을 '엇더흐리'라며 긍정하고 있으므로 고통의 장 소라는 설명은 본문과 정반대이다.
 ④ 종교적 성지라는 해석은 지문의 텍스트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과잉 추론이다.
 ⑤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④ '百年'지 누리리라'는 (ㄱ)이 지켜온 충절의 가치를 계승하여 새로운 왕조에서도 그 명맥을 영구히 보존해주겠다는 약속을 담은 것이겠군.

[출제의도]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④ '百年'지 누리리라'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얻게 될 세속적인 부귀영화와 안정을 의미한다. <보기>의 맥락에서 이는 (ㄱ)의 '충절'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절이라는 명분에서 벗어나 실리를 택하자는 제안이므로 '충절의 가치 계승'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런들/저런들'은 명분(고려)과 실리(조선) 중 무엇을 택해도 좋다는 회유이므로 유연한 선택 권유가 맞다.
 ② 자연물인 침의 얹힘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결합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③ '우리'는 (ㄱ)과 (ㄴ)을 포괄하며, '얹어짐'은 공존과 통합을 상징한다.
 ⑤ '엇더흐리'라는 반복적 질문은 (ㄱ)의 변절이 추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임을 강조하여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려는 의도이다.

04 구절의 기능과 의미

정답: ③ ㉠은 영속성을 상징하는 수치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지속 기간을 구체화한다.

[출제의도]

시구에 사용된 수사적 장치와 어미의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 '百年(백년)'은 인간의 한 평생을 의미하는 관용적 수치로, 얹혀서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구체화한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백년'은 영속성을 지향하는 것이지,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며 쾌락을 좇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② ㉡ '-과져'는 '하고 싶다'는 의미의 소망형 어미이지,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완료형이나 확인형이 아니다.
 ④ ㉢는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평서형(소망형) 문장이지만 의문형이 아니다.
 ⑤ ㉠과 ㉡ 어디에서도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반성의 정서는 찾아볼 수 없다.

05 소재의 상징성 분석

정답: ⑤ 여러 줄기가 뒤섞여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공존의 생태적 질서

[출제의도]

소재가 지닌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화자의 가치관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추론한다.

[정답 풀이]

- ⑤ '드렁쭈'는 이리저리 얹혀서 자라는 식물이다. 화자는 이러한 '얹힘'을 부정적인 구속이나 혼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존'과 '화합'의 원리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줄기가 뒤섞여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가장 적절한 유추이다.

[오답 풀이]

- ① 침은 장애물이 아니라 화자가 지향하는 상태이므로 '길을 막는 가시나무'와는 반대된다.
 ② 순리에 맡기는 태도는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침의 핵심 속성인 '얹힘(상호 관계)'이 결여되어 있다.
 ③ 과
 ④ 는 모두 타협하지 않는 '독야청청'의 자세를 의미하므로, 얹힘을 강조하는 침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06 말하기 방식 분석

정답: ③ 자연의 섭리를 근거로 제시하며 청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완화하고 있다.

[출제의도]

발화의 의도와 수사적 전략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화자는 '만수산 드렁쭈이 얹어진 것'이라는 자연적 현상을 먼저 언급한다. 이는 얹혀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변절이나 타협에 대해 청자가 느낄 수 있는 도덕적 거부감이나 심리적 저항을 줄이려는 고도의 설득 전략이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
 ② 화자의 말하기는 주관적인 의도가 명확히 개입된 회유이지, 중립적인 정보 나열이 아니다.
 ④ 모순을 지적하는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엇더히리'라는 부드러운 어조를 취하고 있다.
 ⑤ 미래의 비극을 경고하기보다 '백년까지 누리리라'는 긍정적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

07 화자의 태도 변화

정답: ③ (가)에 비해 (나)는 '엮어져서'라는 표현을 통해 관계의 지속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출제의도]

두 지문의 미세한 어휘 차이가 화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가)의 '엮어져'와 (나)의 '엮어져서'는 연결 어미의 차이일 뿐, (나)가 (가)에 비해 관계의 지속성을 '더욱' 부각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두 작품 모두 '백년까지'라는 시어를 통해 지속성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엇더히리'라는 반복적 표현이 이를 증명한다.
 ② '-리라'는 의지/미래형 종결 어미이고, '-과져'는 소망을 나타내는 고어 어미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④ 만수산은 침이 얹히는 공간으로, 화자가 제안하는 통합의 모델이 실현되는 장소이다.
 ⑤ '어떻겠느냐(상관없다)'는 설의는 기존의 엄격한 명분론보다 현실적 타협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08 시상 전개 방식

정답: ④ 외부의 상황적 유연함을 제시한 뒤 이를 화자 집단의 삶의 방식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출제의도]

시조의 3단 구성 내에서 논리가 전개되는 방식을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초장과 중장에서 '이런들/저런들/드렁쭈이 얹어진들 어떻게겠느냐'며 외부적 상황의 유연함을 먼저 제시한다. 이어 종장에서 '우리도 이같이 얹어져' 살자며 그 유연함을 화자 집단('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지향으로 연결(내면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자연 경관에 대한 감탄(선경)보다는 상황에 대한 가정과 설득이 주를 이룬다.
 ② 침의 얹힘은 일반적 원리라기보다 비유를 위한 구체적 자연 현상에 가깝다.
 ③ 설의적 질문은 있으나 그에 대한 명시적 대답이 제시되는 문답 구조는 아니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나 인생무상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09 화자의 심리 및 의도

정답: ③ 사소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호방하고 낙천적인 태도

[출제의도]

화자의 목소리에 담긴 정서와 심리적 태도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는 형식이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을 넓게 수용하겠다는 태도이다. 이는 겉으로는 호방하고 낙천적인 어조를 띠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의 경직된 사고를 허물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오답 풀이]

- ①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방향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포용의 선언이다.
 ②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어조이다.
 ④ 집요하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겠느냐'며 상대의 동의를 부드럽게 구하고 있다.

- ⑤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제안이 지닌 정당성을 확신하는 태도가 강하다.

10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③ 화자는 자신과 청자가 '얼거져' 지내는 기간을 한시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화자는 '百年'지(백년까지) '누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긴 시간을 의미하며, 관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구히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젊이 엮히는 모습을 '우리도 이같이' 하자며 인간 관계로 전이시키고 있다.
 ② 중장에서 만수산의 드렁흙이 엮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이런들 엇더호며 ~ 엇더호료/리'의 대구와 반복이 나타난다.
 ⑤ '누리다'는 삶의 즐거움이나 혜택을 마음껏 즐긴다는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11 구절의 함축적 의미 추론

정답: ② 이질적인 존재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를 바라는 통합의 의지이다.

[출제의도]

구절의 함축적 의미를 주제 의식과 연결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② '우리도 이것치 엮어져서'는 화자와 청자, 혹은 서로 다른 집단이 칠평굴처럼 하나로 뒤섞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자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라는 새로운 통합된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강력한 권유이자 의지이다.

[오답 풀이]

- ① '누리리라'는 보상이 따르지만, 그것이 개인의 이기적 욕망이라기보다 집단의 안정을 위한 제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젊은 자연물이지만 여기서의 엮힘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므로 은둔과는 거리가 멀다.
 ④ 엮힘은 계급적 분리가 아니라 융합을 의미하므로 보수적 신분 질서 강조와는 상반된다.
 ⑤ 관계를 맺자는 것이지 끊자는 것이 아니므로 단절과는 정반대이다.

12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가)와 「단심가」 모두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향하는 가치의 방향은 서로 수렴하고 있다.

[출제의도]

대립되는 두 작품의 논리 구조와 가치관을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두 작품 모두 설의법을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가)는 '타협과 통합'을, 「단심가」는 '절개와 불변'을 지향한다. 이 두 가치는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이지 '수렴(하나로 모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엇더호리'는 수용의 설의, '있으랴'는 거부설의 설의로 기능한다.
 ② 젊음 유연함을, 백골(진토)은 파괴될지언정 변하지 않는 강직함을 상징한다.
 ③ '우리'는 관계 중심적 사고를, '이 몸'은 주체 중심적 사고를 보여준다.
 ④ '백년'은 실제 삶의 기간을, '일백 번 고쳐 죽음'은 불가능한 가정을 통한 신념의 강조이다.

13 표현 기법의 효과 분석

정답: ③ 추상적인 정치적 화합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투영한다.

[출제의도]

비유적 형상화의 원리와 그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정치적 화합'이나 '타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다. 화자는 이를 '칠평굴이 엮히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자연 현상에 빗댄으로써 자신의 제안을 더욱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엮힘은 긍정적 통합이지 화자의 심리적 혼란이 아니다.
 ② 자연 예찬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사의 화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을 빌려온 것이다.
 ④ 엮힘은 화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제안하는 상태이지, 벗어날 수 없는 부정적 굴레가 아니다.
 ⑤ 젊의 엮힘은 평등한 뒤섞임에 가까우며 위계질서와는 무관하다.

14 시어의 기능적 비교

정답: ① '드렁흙'은 관계의 확장을, '뿌리'는 존재의 근원을 상징한다.

[출제의도]

서로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비교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① '드렁흙'은 이리저리 엮히며 관계를 넓혀가는 '확장'과 '융합'의 이미지를 갖는다. 반면 〈보기〉의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고 숲의 근간이 되는 '근원'과 '기초'의 이미지를 갖는다.

[오답 풀이]

- ② 젊음 지면을 따라 퍼지므로 수평적이며, 뿌리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므로 수직적이다. 선지의 설명은 정반대이다.

- ③ 줍 역시 '백년까지'를 말하므로 일시적 만남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④ 줍이 외면적 화려함을 강조한다는 근거는 지문에 없다.
- ⑤ 줍은 갈등의 해소(화합)를 위한 모델로 제시된 것이지 갈등의 원인이 아니다.

15 주제의식의 심층 이해

정답: ③ 명분보다는 실리를, 대립보다는 화합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태도

[출제의도]

작품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 그 이면에 깔린 철학적/정치적 가치관을 도출한다.

[정답 풀이]

- ③ 이 작품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설의를 통해, 고려나 조선이나 하는 명분 싸움보다는 함께 어우러져 평안을 누리는 실리와 화합이 더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는 매우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의 반영이다.

[오답 풀이]

- ① 이는 정몽주의 「단심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본 작품과는 정반대이다.
- ②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의도는 있으나, '새로운 문물 수용'과 같은 구체적 개혁안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자연은 비유의 매개체일 뿐, 도덕성 회복이나 생태주의와는 무관하다.
- ⑤ 오히려 '엮어지자'며 사회적 결속(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